

## 김현미 장관, “정부-업계 간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건설혁신” 당부 14일 전문가 간담회서 건설혁신 조기 안착방안 논의·안전관리 강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(금)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혁신위원회, 연구원,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  - 금일 행사는 그동안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로 발표해 온 건설혁신 대책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진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김 장관은 “지난해 40여 년 이상 이어온 건설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, 공공공사 임금직불제를 의무화 하는 등 정부-업계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”했다면서,
  - “앞으로도 기술경쟁을 촉진하도록 업역·업종을 개편하고,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등 혁신방안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금일 간담회에서는 업종개편 방안 등 현안 과제와 함께, 일자리 개선,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, 해외진출 확대, 신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전반적인 혁신대책의 조기 현장안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.
- 한편, 김 장관은 “건설 선진국은 ‘안전’의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다”며 특히, 지난주 부산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공사장 추락사고를 언급하면서,
  - “일체형작업발판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19. 6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